

[문제] (가)와 (나)의 공통된 논지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다)의 ‘어린아이’와 ‘시골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덕목이 지니는 사회적 의의가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1200자, 100점)

(가)

자연은 우리 인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모두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로 태어나 이 땅 위에서 짧은 시간을 살다가 죽어 그 육체로 땅을 비옥하게 할 것이요. 당신들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서로를 도우시오. 당신들은 무지하므로 서로를 가르치고 용인하시오. 만약 당신들 모두가 같은 의견이고 단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이라면 당신들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당신들 각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이요. 나는 당신들 인간에게 땅을 경작할 팔을, 그리고 자신을 인도해 줄 한 줌의 이성을 주었소. 나는 당신들 각자의 가슴에 서로를 도와 삶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동정심의 싹을 심어 주었소. 이 싹을 꺾거나 썩히지 마시오. 이 동정심의 싹이야말로 신이 내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오. 그리고 당신네의 가련할 수밖에 없는 당파적 논쟁의 격앙된 고통으로 자연의 목소리를 지우지 마시오. 당신네 인간들이 걸핏하면 벌이는 잔인한 전쟁, 과오와 우연과 불행이 펼쳐지는 영원한 무대인 그 전쟁 한복판에서도 오직 나 자연만이 당신들을, 당신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당신들 서로 간의 필요로 결합하게 할 수 있소. 오로지 나 자연만이 국가의 귀족층과 사법부 사이, 세속 권력 집단과 성직자 사이, 도시민과 농민 사이의 끊임없는 분열로 빚어지는 참담한 재앙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소.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권리를 끝없이 요구하고 있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마음 내키지 않겠지만, 가슴에 호소하는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요.”

- 볼테르, 『관용론』에서

(나)

대화 역량은 평화 역량을 위한 덕목이다. 대화가 중단되는 곳에는 그것이 개인적인 영역이든 아니면 공적인 영역이든 전쟁이 일어났다. 대화가 실패하는 곳에서 억압이 시작되었고 권력자들의 힘이 지배했다. 대화를 시도하는 자는 발포하지 않는다. 대화를 지지하는 자는 자신의 교회와 종교의 규칙에 따라 얽매이지 않으며, 다르게 생각하는 자 또한 이단자와의 투쟁이라는 형태를 혐오한다. 대화를 지지하는 자는 대화를 고수하고, 필요하다면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고자 하는 강력한 내적인 힘을 소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종교가 이단자에 대해 거둬 관용하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한, 대화 역량이라는 덕목에 관해 아무런 이해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대화 역량에 우리의 모든 정신적 생존은 물론 심지어는 윤리적 생존도 달려 있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왜냐하면 종교 사이의 대화를 배제하고는 국가 사이의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고, 종교 사이의 대화를 배제하고서는 종교 사이의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고, 신학적인 기본 연구를 배제하고서는 종교 사이의 어떠한 태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한스 쿡, 『세계 윤리 구상』에서

(다)

어린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그 귀가 갑자기 우는지라 놀라 기뻐하며 가만히 옆의 아이에게 말하였다.

“애! 너 이 소리를 들어보아라. 내 귀가 우는구나. 피리를 부는 듯, 생황을 부는 듯, 마치 별처럼 동그랗게 들려!”

옆의 아이가 귀를 맞대고 귀 기울여 보았지만 마침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귀 울음이 난 아이는 답답해 소리 지르며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한탄하였다.

일찍이 시골 사람과 함께 자는데, 코를 드르렁드르렁 고는 것이 게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하고, 탄식하거나 한숨 쉬는 소리 같기도 하며, 불을 부는 듯, 솔이 부글부글 끓는 듯, 빈 수레가 덜그럭거리는 듯하였다. 들이마실 때에는 톱을 켜는 것만 같고, 내설 때에는 돼지가 짹짹거리는 듯하였다. 남이 흔들어 깨우자 발끈 성을 내며 말하기를,

“내가 언제 코를 골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 박지원, 「공작관문고 자서」에서